

포르투갈전, 우려 속 희망 생기나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서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 퇴장당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활용 거론

파울루 벤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가나전 막판 퇴장을 당해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인 포르투갈전을 지휘할 수 없게 됐다. 벤투 감독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벤투 감독은 28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가나전에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그라운드로 뛰어나가 주심에게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다.

추가 시간 중 가나 선수가 부상으로 쓰러져 경기를 지연시킨 만큼 '추가 시간의 추가 시간'이 적용돼야 했지만 엔서니 테일러(잉글랜드) 심판은 한국에 코너킥 공격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경기 종료를 선언했다. 그러자 벤투 감독은 그라운드로 들어가 테일러 심판 면전에서 강하게 항의했다. 부적절한 발언이 없었음에도 테일러는 빨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 등 선수들이 테일러 심판에게 항의하다 경고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벤투 감독이 일부러 더 강하게 대응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선수가 받은 경고는 페어플레이 점수에 반영돼 향후 조별리그 순위 결정에 영향을 주지만 감독이 받은 경고나 퇴장은 순위에 영향을 없기 때문이다.

의도가 어땠든 벤투 감독은 오는 3일 새벽 0시에 열리는 포르투갈전을 벤치가 아닌 관중석에서 지켜보게 됐다. 무전 등으로도 팀과 연락하지 못하며 하프타임 라커룸에도 출입할 수 없다.

큰 틀의 전술은 경기 전에 확정되므로 문제가 없지만 벤투 감독이 없을 경우 특점이나 실점, 선수 부상 등에 따른 임기응변에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선수들에게 무지와 용기를 불어넣어야 할 하프타임 지시도 불가능해졌다. 선수들은 벤투 감독 부재에 우려를 표했다.



28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2대 3으로 패한 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주심에게 항의하던 과정에서 레드카드를 받고 있다.

손흥민은 가나전 후 기자들과 만나 "감독님이 경기장에 못 앉아 계시는 것은 팀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며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훈련하면서 분명히 잘 말해 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이행하기 위해서 더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며 며칠 안 남은 시간 동안 더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강인도 "당연히 벤치가 감독님이 없는 것은 안 좋은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래도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감독이 없는 상황은 오히려 선수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투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1998년 프랑스월드컵 당시 차범근 감독이 2차전 네덜란드전 0-5 참패로 경질된 후 삼기일정한 대표팀은 마지막 벨기에전에서 유상철의 동점골로 1-1로 비긴 바 있다.

특새를 공략해 작전 지시를 할 방법도 없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지시까지 국제축구연맹이 제지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은 벤투 감독이 포르투갈전에 관중석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작전을 지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카타르 현지에서 있는 이 부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경기 전에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약간 다른 것은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으로도 사실은 약간씩 감독이 관여를 하기도 한다"며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지만 문자메시지를 주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다. 어떤 경우는 벤치가 없어도 승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짚었다.

카타르 현지에서 있는 이 부회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경기 전에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약간 다른 것은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으로도 사실은 약간씩 감독이 관여를 하기도 한다"며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지만 문자메시지를 주는 것까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다. 어떤 경우는 벤치가 없어도 승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짚었다.

한국축구대표팀, 16강 끝난 것 아니다

조 추첨까지 갈 수도

벤투호가 포르투갈과 펼칠 2022 카타르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최대한 많은 골을 넣고 이겨야 16강 진출 확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별리그 2차전까지 끝난 현재 한국은 1무1패 승점 1점이다. 득점은 2점, 실점은 3점으로 골득실 차는 -1이다.

조 1위 포르투갈은 2연승 승점 6점으로 16강 진출이 확정됐다. 2위 가나는 1승1패 승점 3점, 득점 5점에 실점 5점으로 골득실 차는 0이다. 최하위 4위 우루과이는 1무1패 승점 1점 득점 없이 실점 2점으로 골득실 차는 -2다.

우루과이가 3-0으로 이긴 경우 등에는 한국이 우루과이에 다득점에서 앞서 16강에 오른다.

한국이 우루과이와 경고 횟수 등을 반영한 페어플레이 점수를 비교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한국 1점차 승리, 우루과이 2점차 승리 시 추첨까지 갈 수도

한국이 1-0으로 이기고 우루과이가 3-1로 이긴 경우, 한국이 2-1로 이기고 우루과이가 4-2로 이긴 경우, 한국이 2-0으로 이기고 우루과이가 4-1로 이긴 경우, 한국이 3-

1로 이기고 우루과이가 5-2로 이긴 경우 등에는 골득실과 다득점이 같아져서 한국과 우루과이가 3경기에서 받은 경고 수 등을 따져야 한다.

▲한국 1점차 승리, 우루과이 가나 비길 경우 사실상 탈락

한국이 포르투갈을 잡더라도 우루과이와 가나가 비길 경우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한국이 4-3 이상으로 다득점 1점차 승리를 거두지 않는 한 우루과이 가나가 비기면 한국이 가나에 다득점에 밀려 탈락한다.

반면 한국이 포르투갈을 2점차 이상으로 이기면 가나에 골득실이 앞서게 돼 16강 진출이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국은 마지막 포르투갈을 상대로 큰 점수차 내지는 다득점으로 이겨야 실점같은 16강 진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뉴스

▲포르투갈전 비기거나 지면 탈락

한국이 조별리그 최종전 포르투갈전에서 비기거나 지면 무조건 탈락한다.

가나가 우루과이전에서 이겨도 한국은 자동 탈락한다.

만약 가나가 우루과이와 비길 경우 한국이 포르투갈을 2골 차 이상으로 잡지 못하면 골득실에서 가나에 밀려 탈락한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겨도 우루과이가 가나를 크게 이기면 한국은 골득실에 뒤져 16강 진출에 실패한다. 한국이 포르투갈을 1점 차로 이겼는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3점 차 이상으로 이기면 한국이 탈락한다.

▲우루과이 같은 점수차 승리 시 진출

한국이 포르투갈에 2점 차로 이겨도 우루과이가 가나를 4점 차 이상으로 꺾으면 한국은 떨어진다.

반면 한국이 1-0으로 이기고 우루과이가 2-0으로 이긴 경우, 한국이 2-0으로 이기고

현재 H조 3위... 포르투갈 이겨야 진출

우루과이가 가나에 근소하게 이겨야 유리

포르투갈에 많은 골 차로 승리해야

전북선관위, 지방체육회장선거 첫 위탁관리

내달 15일 도 체육회장, 22일 시·군별 체육회장 투·개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과 22일, 도내 각 시·군에 실시하는 지방체육회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밝혔다.

지방체육회장은 지난 2019년까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임했으나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개정으로, 지자체장 또는 지방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 민선회장 체제로 전환됐고 회장선거는 선거위가 관리하게 됐다.

도 및 14개 시·군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방체육회장선거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변경된 후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로, 후보자등록신청은 도 체육회장선거의 경우 12월 4~5일, 시·군별 체육회장선거는 12월 11~1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로 하면 된다.

도 체육회장과 시·군별 체육회장 투·개표는 각각 12월 15일, 22일 실시한다. /김경수 기자

이달부터 니카라과 초등 정규수업으로 태권도 포함

태권도진흥재단, 니카라과 교육부와 공교육화 협약 체결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 이하 재단)은 28일,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니카라과 교육부(장관 필리파 에스페란자 헤레라 모레노)와 업무협약을 맺고 니카라과 국공립학교에서 태권도를 정규수업으로 도입·확대해 나가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재단 김 용 진흥본부장 필리파 니카라과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주니카라과대한민국대사관의 신성기 대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 간 수교 60주년을 맞는 해에 태권도진흥재단과 니카라과 교육부 간 업무협약이 성사되었다는 신성기 대사의 축하를 시작으로, 진광운 국기원 해외파견사범의 태권도 공교육 기대효과 등의 발표와 함께 학업능력 향상, 교우관계 개선과 같은 태권도 교육 효과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양측은 11월부터 니카라과 국공립초등학교 2개교에서 태



권도 정규 수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9개교를 추가해 총 11개의 국공립초등학교에서 태권도 정규수업을 실시하는 등 태권도 진흥 및 보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